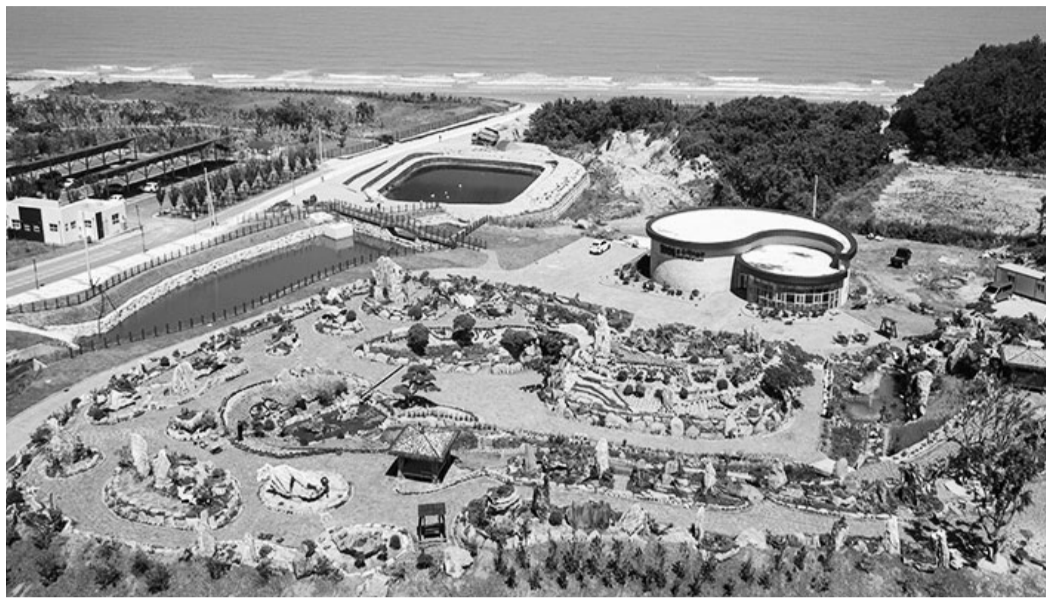


# 문화의 달 행사 '피아노 섬' 신안 자은도 관심 집중

51년만에 육지 아닌 섬서 첫 개최  
20~22일 사흘간 뮤지엄파크 일원  
104대 피아노 오케스트라 콘서트  
AI 피아노·100년 피아노 전시도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가 신안 자은도 뮤지엄파크 일원에서 열린다.

섬에서 처음 열리는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개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 무대인 전남 신안 자은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안군은 '피아노의 섬'으로 불리는 자은도에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가 열린다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열두 번째 큰 섬인 자은도는 예술 섬 프로젝트 추진으로 '피아노의 섬'이란 별칭을 얻었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임동창 예술감독이 이끈 행사를 이끈다.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는 정부가 1972년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지정한 이래 51년 만에 처음으로 육지를 벗어나 섬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신안군이 공동 주최하는 2023 문화의 달 행사는 '섬, 대한민국 문화 다양성의 보고-1004섬 예술로 날다'를 주제로 열린다.

주 무대는 자은도 뮤지엄파크 일원이다. 자은도는 2019년 개통한 7.22km 길이던 서남해안의 명물 '천사대교'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목포와 다리로 이어진 압해도와 자은도-압해도-팔금도-안좌도를 잇는 연도교가 들어서면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 부쩍 늘어났다.

자은도와 안좌도의 갈림길인 압해도 기동삼거리의 동백 파마머리 벽화는 신안의 명소로 떠올랐다. 안좌도 남쪽에 있는 외딴 형제섬 반월·박지도는 '퍼플섬'으로 더 유명하다.

반월·박지도는 2년 전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선정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베스트 투어리즘 빌리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섬과 섬 사이 위치한 자은도는 피아노의 섬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모래가 파도와 바람에 밀려와 사구를 이룬 자은도는 길고 넓은 백사장도 유난히 많다.

신안군은 이런 아름다운 경관과 피아노 선율을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북부의 작은 도시 르 투케 파리 플라주의 피아노 축제 '레 피아노 플리에'(Les Pianos Folies)를 본보기로 삼았다.

'1도 1 뮤지엄, 1섬 1 테마정원'에 이은 신안군 예술섬 사업의 하나로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자은도 백산리 1004뮤지엄파크가 있다.

이곳은 수석미술관과 수석 정원, 세계조각박물관, 새우관 전시관, 바다 휴양 숲 공원, 야영장, 백산 사구를 품고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다.

피아노의 섬 사업을 이끄는 임동창 총감독은 문

화의 달 행사 첫째 날 100+4(104대) 피아노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선보인다.

서남해안 도서 지역 축제 문화인 '산다이'에서 영감을 얻은 자작곡 '아름다운 피아노 섬, 자은도'를 시작으로 바이엘, 찬송가, 클래식, 영화 삽입곡, 대중가요를 재해석한 연주곡을 104명의 정상급 피아니스트와 협연한다.

대금 명인 이생강, 판소리 명창 왕기철·왕기석·이영태와 함께하는 협업 공연과 가야금 산조 협주곡,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나도 피아니스트' 프로그램도 있다.

행사 기간 자은도 곳곳에서는 피아노를 만날 수 있다. 자은도 라마다호텔과 뮤지엄파크, 무한의 다리 등 주요 지점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피아노가 설치된다.

또 새우관 전시관 유리온실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AI(인공지능) 피아노와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는 피아노가 전시된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이 개발한 인공지능(AI) 피아노는 악보를 AI가 음원으로 인식해 스스로 피아노를 연주한다.

1800대 초반부터 1900년대 초반에 생산된 라이어 피아노, 그랜드 스퀘어 전시를 비롯해 세바스찬 에라르 피아노 연주도 직접 들을 수 있다.

신안군은 문화의 달 행사가 끝나면 자은도에 피아노 전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여름에는 국내외 피아노 조율사, 교습자 등 55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 피아노 제조 기사·조율사협회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6~8일 목포 드론 라이트쇼 노을공원 드론 500대 군무

목포의 대표 축제인 '2023 목포 드론 라이트쇼'가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열리며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목포시는 이 기간 북항노을공원 일원에서 행사를 열어 시민과 관광객을 맞는다고 5일 밝혔다. 드론 축제는 행사 기간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된다.

드론 축제에서는 500대의 드론을 군집해 화려한 군무를 선보인다.

축제 첫날에는 수 김희재, 류원경, 김다나, 정다한, 최나리가 무대에 올라 흥을 돋운다.

이튿날에는 김섭, 허성현, MC그리가 출연하고, 마지막 8일에는 포맨, 김연지(씨야), 이아영, 윤성기의 공연이 펼쳐진다.

지난 행사에서 인기를 끌었던 체험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방문객들은 드론 농구, 드론 시뮬레이션, 드론 낚시, 풍선 터뜨리기, 장애물 레이싱(경주), 3D펜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목포시는 행사장 곳곳에서 '전남 방문의 해'와 연계해 전남과 목포의 관광 자원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달과 11월 목포 등지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홍보에도 힘을 쏟는다. 시는 양대 체전을 소개하는 별도 홍보 공간을 운영한다.

목포시는 행사 기간 교통 혼잡을 예방해 방문객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또 다른 기관과 협업해 안전 대책에 신경 쓸 방침이다. /목포=문병성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해남군 전지역 광역·지방 상수도 공급

2027년까지...관 연결 사업 박차

해남군은 오는 2027년까지 광역·지방상수도물 모든 읍·면에 연결한다고 5일 밝혔다.

해남 전역에서는 9개의 상수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1227억원이 들어간다.

해남군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면 단위 지역에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오래된 상수도 시설물의 정비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삼산면 일부와 화산면 전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삼산-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41억원을 투자한다.

이곳에서는 상수관로 매설을 마무리하고, 이달 현재 마을별 지선관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021년 시작한 옥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착공하고 관로를 묻고 있다.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남교도소와 우리 종합병원, 농공단지, 주변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게 된다. 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현산면 15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남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어 현산면 물 복지 확대사업에 76억원 추가 투자한다. 광역상수도 공급 공사는 연말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계곡면 상수도 공급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옥천-계곡 간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올해 6월 착공했다.

이와 함께 오래된 상수관로를 교체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도 시설 공사에 착공했다.

해남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는 국비 169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4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까지 5년에 걸쳐 해남읍, 송지면 일원 노후 상수관로 40km를 교체한다.

사업을 마무리하면 이달 27%를 보이는 누수율을 15%까지 줄일 것으로 해남군은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해남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3차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마무리한다. 해남정수장은 하루 400만 l(4000㎥)의 생활용수를 해남읍과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일원 주민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40년 넘는 해남취수장 개량을 위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54억원, 섬지역인 화산면 삼마도의 식수원개발사업에 18억원을 확보했다. 해남군은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달 발주와 착공이 이어갈 예정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무안 남악신도시에 1만평 코스모스 '활짝'

무안군이 남악신도시에 3만2000㎡(9680평) 규모 코스모스 꽃밭(사진)을 만들었다.

코스모스 꽃밭은 남악신도시 안 의료용지 유휴지와 대죽도 인근에 마련됐다. 무안군은 지난 7월 코스모스 꽃씨를 뿌려 꽃단지를 만들었다.

무안군은 잇달아 발생하는 유휴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꽃단지 조성을 시작했다.

계절별로 해바라기와 천일홍, 꽃양귀비, 코스모

스 등을 심어 주변 환경을 개선해왔다.

강명수 무안군 신도시지원단장은 "가을의 전령사인 코스모스꽃이 만발해 꽃 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가족들끼리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가을 정취에 흠뻑 취하면 좋겠다"며 "도심 속 유휴지를 활용해 더욱더 불거리가 풍성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완도군 5기 청렴 읍부즈만 12개 읍·면 선발 28명 위촉

완도군이 5일 투명한 군정을 이끌 '청렴 읍부즈만' 28명을 위촉했다.

이날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완도군 5기 청렴 읍부즈만 위촉식'에는 12개 읍·면에서 뽑힌 28명의 민원 도우미가 참석했다.

농수산업과 지역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민들이 위촉됐다. 완도군 청렴 읍부즈만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완도군은 위촉식과 함께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어 '읍부즈만이 꼭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 특강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청렴도를 높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청렴 읍부즈만은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한다.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한 감사 청구 ▲반복 제기되는 고충 민원의 공동 조사 ▲공직자의 무사 안일·부정 비리, 잘못된 행태 고발 등이 활동 범위에 포함된다. 청렴 읍부즈만 참가자들은 제보에 대한 조사 과정에도 참여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하는 워크숍을 통해 위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청렴 완도로 나아가는 길에 한 발짝 가까워질 바랍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